

# 조선시대 동아시아 삼국의 濟州島 인식\*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李 圭倍

---

## 목 차

---

서론

제1장 임진왜란 초기의 제주인식

제2장 강화교섭기의 제주인식

제3장 정유재란기의 제주인식

결론

---

## 서론

제주도 서남부지대인 모슬포 평야(일명 알뜨르)에는 일제강점기였던 1931년 3월부터 일본제국주의의 군사기지로서 항공기지가 건설된 적이 있었다.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인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이 본격 개시되던 시기였다. 일본 해군은 1937년 8월부터 나가사키(長崎)현의 오무라(大村) 항공기지에서 출격하여 중국의 남경과 상해 등지를 폭격하기에 이른다. 이때 귀환 중간거점으로 제주를 경유하게 된다. 당시 항공기의 성능상, 중국을 공격한 후에 일본까지 귀환하기 어려웠던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제주도는 일본군의 지정학적 군사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강요받기에 이른다(塚崎昌之 2004:24-226).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제주도가 주목받은 것은 비단 이때만이 아니다. 거슬러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A00040).

올라가면 13세기에 元나라는 “탐라가 남송(南宋)과 일본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한 바가 있었다(金泰能 1988:57. 朴祉炫 1988.8:21).<sup>1)</sup> 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제주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한 나라로는 러시아와 일본·미국 등이 있었다(허호준 2010.2:71-81).

부분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기록으로 미루어, 제주도가 때로는 중국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때로는 일본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주목받아왔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만큼 제주도가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삼국(朝鮮·明·日本)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당시는 어떠했을까? 이것이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이하 임란으로 약칭)이 한반도에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피해는 너무나 막대하다. 그렇다면 제주는 과연 어떠했을까? 통상적으로 임란 과정에서 제주를 무풍지대였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종래의 방대한 임진왜란 관련 연구 축적에도 불구하고 임란과 제주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sup>2)</sup> 임란 발발 20여 일만의 한양 함락과 60여 일만의 삼도(한양, 개성, 평양) 함락, 선조의 몽진과 이순신 및 의병의 활약, 明나라 참전 등이 주로 주목을 끄는 결과, 상대적으로 제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진 것은 피할 수 없었던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임란 과정에서 제주는 전황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가 임란의 전황을 전환시키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일본·明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전략거점으로 비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제주인식은 임란 초기(1592년 4월~1593년 4월)와 강화교섭기(1593년 4월부터 정유재란 직전까지), 정유재란기(1597년

1) “耽羅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宋日本衝要 亦注意焉”. 『元史』 「列傳95 外夷1 耽羅」. 安鼎福 1979:127.

2) 해방 이후 국내에서 연구 발표된 임진왜란 관련 논문은 400여 편에 달하지만, 임란과 제주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논문은 전무하다(박재광 2005:47-82). 한편 1893년부터 일본에서 연구된 임진왜란 관련 논문도 502편이라는 방대한 양에 달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六反田豊 外 2005:57-75. 梁聖宗 1991.2:147-167). 한편 제주지방사 관련 전문학술지인 『濟州島研究』(제주학회) 제1집(1984)~제34집(2010.8)이나 『耽羅文化』(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1집(1982.2)~제37집(2010.8)에도 임란과 제주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金宗業 1984.2:4-11도 참조바람.

1월~159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임란 과정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인식의 실태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임란과 제주도의 관계사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종래의 연구사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sup>3)</sup>

연구방법으로는 『조선왕조실록』·『난중일기』(亂中日記)·『난중잡록』(亂中雜錄)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民官 자료들은 이상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선측 자료와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저술된 일본측 자료 및 『明史』와 같은 중국측의 일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제1장 임진왜란 초기의 제주인식

고려시대의 제주는 육지부와는 달리 빈번한 왜구침탈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고,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와 왜구 사이에는 심각한 충돌상태가 야기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온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sup>4)</sup>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서면 왜구의 제주침탈은 이른 시기부터 간헐적으로 자행(『세종실록』 4卷, 1년 6월 壬午. 『세종실록』 26卷, 6년 11월 戊寅. 『세종실록』 68卷, 17년 6월 戊辰)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1439년에는 제주가 ‘왜구의 선착장’이 될 수 있는 ‘요해처’이기 때문에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韓承舜)에 의해 제주도 사방에 방어소를 설치하게 된다(『세종실록』 84卷, 21년 윤2월 壬午). 이는 제주의 지정학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다만 1500년대 중반에 들어서기까지는 본격적인 왜구의 제주침탈은 발견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삼포왜란이 발발하는 1510년(중종 5) 4월에는 체찰사(體察使) 성희안(成希顔)에 의해 ‘제주는 왜구가 통행하는 곳’임으로 ‘제주의 방어에 배 이상의 조치를 더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제주도 방어를 위해 제주목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장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중종실록』 11卷, 5년 4월 壬寅).

3) 다만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연구와 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제주도와 삼별초의 난·몽골·왜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 머물러 있을 뿐, 임진왜란과 제주도에 대한 관계사 조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朴祉炫 1988.8. 김일우 2008.8).

4) 고려시대 왜구의 제주침탈은 1316년을 시작으로 해서 1350년, 1352년, 1359년, 1376년, 1377년에 관련기사가 간헐적으로 보인다(제주도 2006:844).

비록 왜란 발발지는 부산, 울산, 진해와 같은 육지부였지만, 삼포왜란의 여파로 인해 제주지역도 침탈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위기감과 인식은 제주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5)</sup> 즉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여말선초까지의 왜구의 제주침탈 때와는 달리 삼포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조정의 제주에 대한 관심도 본격적으로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파악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란 이전까지 왜구는 제주를 비롯한 조선 각처를 노략질의 대상으로 대할 뿐, 군사적·영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중대한 변화를 겪기에 이른다.

『선조실록』(37卷, 26년 4월 丁酉)에 따르면 임란 과정에서 제주와 관련된 첫 번째 기록<sup>7)</sup>은 임란 발발 1년 뒤인 1593년 4월 13일에 제주목사 이경록(李慶祿)이 “군사 2백명을 뽑아 바다를 건너 힘을 합쳐 전진하여 토벌하고자 하여 조정의 하명을 청”한다는 참전요청이었다. 1593년 4월이면 평양과 서울이 수복되고 강화회담이 진행되던 때였다(유성룡 2007:243-248). 이러한 이경록의 상언은 “탄환 같은 조그만 섬이 현재까지 다 행히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이 아직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적이 침범한다면 일개 섬의 힘만으로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주장(主將)으로서 진(鎭)을 떠나 바다를 건너 멀리 천리 길을 올 수 있겠습니까.”는 비변사의 회계(回啓)로 인해 수용되지 않는다(『선조실록』 37卷, 26년 4월 丁酉). 제주에는 임란의 전

5) 제주의 부사맹(副司猛) 김의중(金義中)은 “제주는 적침을 받을 요충 지역이 매우 많은데 …… 무략과 담용이 있는 자를 가려서 진수하게 하여 방호를 실하게 하소서.”라는 상소를 올리고 있다(『중종실록』 11卷, 5년 7월 甲子).

6) 왜구의 첫 번째 침입이 있었던 1223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1392년인 약 170년 사이에 발생한 왜구의 고려침탈은 적게는 409건에서 많게는 519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눈에 비친 고려는 영토점거가 아닌 도적행위의 대상지에 머물러 있었다(金普漢 2004.12:228). 이영은 왜구에 대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또한 정치·외교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재원의 약탈이나 사람의 납치를 목적으로 한 일본인으로 구성된 무장집단 내지는 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영 2003.12:212-213).

7) 임란 발발 초기 제주가 주목받은 것은 軍馬 때문이었다. 1592년 6월에 전라도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이 제주목사 양대수(楊大樹)에게 보낸 치고(馳告)에는 “탐라 땅은 중국의 기북(冀北)과 닮음이 없어서 골짜기를 뛰어넘어 다니며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전투 행진에 따라다니 또한 목숨을 의탁할 만하다 하니, 만약 그곳에서 나는 말을 바닷배에 가득 실어 보내 주신다면 우리 군대의 위용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마 조달을 요청하고 있다. 趙慶男(1971) 『난중잡록』(亂中雜錄)一, 壬辰上, 6월 6일. 한편 고경명의 아들인 의병장 고종후(高從厚)도 1592년 11월에 ‘제주·정의(旌義)·대정(大靜) 3고을, 高姓·梁姓·文姓 세 집안 문호의 모든 어른’에게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고 있다. 趙慶男(1971) 『난중잡록』 二, 壬辰下, 11월.

화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파병을 통한 참전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이처럼 제주에서의 파병을 통한 참전의지가 수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비변사의 회계처럼 ‘탄환 같은 조그만 섬’에 ‘적이 침범’하는 사태를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삼포왜란 이후 ‘제주는 왜구가 통행하는 곳’으로 제주 방어를 위해서 ‘배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는 조선 조정의 지정학적 제주 중시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주요 전장이 육지부에서 전개됨으로써 제주에 대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93년 하반기로 들어서면 제주를 둘러싼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발생한다.

임란 발발 당시 3군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육지부 공략을 목표로 하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제1군 중로(中路)·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제2군 좌로(左路)·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의 제3군 우로(右路)로 나뉘어 북상하였고, 수군 주력은 해상경험이 풍부한 수군 대장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를 위시하여 도도 다카도라(藤堂高虎)·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의 부대로 편성되었다(小瀬甫庵 1988:84-87, 99. 山鹿素行 1915:351. 參謀本部 1924:65-79). 침략 당초부터 일본 수군<sup>9)</sup>의 역할은 병력·군수품 운반에 제한된 것이었고, 해전을 통한 조선 수군 격파나 해로장악과 같은 목표는 없었다(柴山尚則 1892.1:9. 北豊山人 1894:205. 參謀本部 1924:212, 216. 有馬成甫 1942:6, 8-9, 17-18, 53. 北島萬次 2002:202-203. 이민웅 2004:74-76.). 임란 초기에 제주를 공략목표로 하는 부대가 편제되지 않은 점이나 제주 공략에 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전략구상이 없었던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3로로 나뉜 일본군은 개전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시키고 두 달 만에 평양까지 공략하는데 성공<sup>10)</sup>함으로써 明 국경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

8) 1593년 6월에 明 경략(經略)에게 회자(回咨)한 내용에도 제주와 대정·정의에는 적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인다(『선조실록』 39권, 26년 6월 戊子). 그러나 다음 해인 1594년 6월 기록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이미 주사(舟師)로 100명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 있으며 추가로 50명을 시취(試取)할 것을 선조가 하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주인이 수군의 일원으로 임란에 참전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선조실록』 52권, 27년 6월 己酉).

9) 출병의 선봉인 육로군 13만 명과 수군 약 9,200명을 차출하고 있다.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中, p.33. 「後陽成天皇 二. 1591년 冬10月」 林羅山·林鷲峰 1897:8-9.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에는 총 15만 450인(육로 14만 200명, 船手 1만 250명)이라 되어 있다.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一, pp.20-21.

10) 豊臣秀吉이 5월 중에 도해하여 한양으로 향하고자 했던 것도 이 승전보 때문이었고, 그 길로 1592년

다.<sup>11)</sup> 평양을 공략한 小西行長の “일본 수군 10여만 명이 서쪽 바다로 오게 되니 대왕의 행차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시렵니까?”(유성룡 2007:171)는 호언대로 육로와 수로에 걸쳐 ‘정명(征明)’을 위한 ‘가도(假道)’가 무력적으로 완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정명’을 위해 군이 제주를 주목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sup>12)</sup>

한편 수로에서는 일본군의 연패가 이어지고 있었다.<sup>13)</sup>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을 필두로 당포해전(1592.6.2)·울포해전(1592.6.6) 패배에 이어 한산해전(1592.7) 대패 이후 豊臣秀吉은 수군 제장에게 거제도과 요충지에 성채를 공고히 하고 조선 수군과의 해전 중지를 명한다. 때문에 1592년 7월 중순 이후 일본 수군은 해전회피라는 방략(方略)에 준거해서 적극적 수전에서 오로지 海口를 방비하는 수세적 전략으로 선회하기에 이른 다(參謀本部 1924:219. 北島萬次 2002:210-215. 차철욱 2006:110-111). 1592년 8월 이

중에 직접 北京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徳富猪一郎(1925)『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朝鮮役 上卷, p.443, p.445.

11) 小西行長은 선조에게 보낸 서신에서 압록강을 건너 明을 정벌하겠다고 쓰고 있다. 林羅山(1658)『豊臣秀吉譜』中, p.41. 加藤清正도 함경북도와 만주의 국경까지 올라가 있었다. 堀正意(1894)『朝鮮征伐記』卷第一, p.36.

12) 豊臣秀吉이 중국공략을 위해서 주목했던 곳은 제주가 아닌 중국의 강남지방이었다. 특히 절강성(浙江省)의 영파(寧波)는 ‘남지나와 일본의 교통 要港’으로서 일본 貢船이 출입하던 곳이었고 고대 일본의 견당사(遣唐使) 시대에도 寧波를 경유한 바가 있다. 豊臣秀吉이 중국을 정복한 뒤에 寧波에 자신의居所를 정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通商상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徳富猪一郎(1925)『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朝鮮役 上卷, pp.446-447. 이런 지리적 정보 때문에 豊臣秀吉은 2백 여 척의 배로 평후(澎湖)와 대만을 공략하고 중국의 절강성과 복건성 일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明의 방어망 구축으로 인해 좌절된 바가 있다(김한규 2007:299-300, 303, 314). 실제로도 그는 절강성과 복건성 방면으로의 군사적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런 구상이 琉球에 의해서 明에 누설되는 것을 염려하여 琉球로 하여금 明에 대한 조공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川口長孺(1831)『征韓偉略』卷之一, p.15. 明에서도 이러한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일례로 일본침략으로부터 조선이 화를 입게 된 것은 明 침략로를 거절했기 때문임으로 明의 조선구원은 당연하다는 선조의 주장에 대해 明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유허상(劉黃裳)은 “만약 왜노가 明나라를 침범하려 하였다면 절강이나 영파부 등처로 침범할 수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귀국을 경유했겠습니까?”고 반박한 바가 있다(『선조실록』 34卷, 26년 1월 戊午 및 1월 辛酉). 또한 1592년 6월 초순 小西行長の 평양성 공격 직전에 열린 大同江 船上 회담에서 “國王을 모시고 이 지방을 피하여 우리가 요동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오.”는 일본측(玄蘇·柳川調信)의 요청에 대해 大司憲 이덕형(李德馨)이 “귀국이 만약 중국만을 침범하려고 하였다면 어찌 절강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왔습니까?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입니다.”고 반박한 것도 이런 지리적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선조실록』 27卷, 25년 6월 丁酉).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國學의 大成者라 불리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도 임란으로부터 200여 년 후인 1796년에 豊臣秀吉의 전략을 비판하며 ‘남방에서부터 공격해 나가면서 우선 남경이란 곳을 제압했다면 매우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本居宣長 著·山口志義夫 譯 2009:254-255).

13) 일본 수군을 제압한 이순신의 활약과 공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공인되고 있다(佐藤鐵太郎 1908:450).

후 1593년 3월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일대에 대한 조선 수군의 수 차례에 걸친 공략에 대해서도 육상에서만 응전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參謀本部 1924:220-221). 일본 수군의 거점은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전환되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이 새삼 제주를 주목한 것은 1593년 6월에 들어서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金應瑞)의 치계(1594년 6월 21일)이다. 여기에 따르면 ‘각추(各酋)가 평양과 전라에서 실패한 것을 깊이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배를 모아 식량을 운반하고 강병을 더 조발해서 본년(1593년) 7월 중으로 2기(起)로 나누어 1기는 제주로부터 곧바로 전라도로 침범해가고, 1기는 경상도로부터 곧바로 경기도로 들어가 동서에서 분탕질하며 이내 합세하여 서쪽으로 침략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공칭하였다.’는 것이다(『선조실록』 56卷, 27년 10월 甲寅). 이 치계에서 거론된 ‘각추가 평양과 전라에서 실패’했다는 정보의 실체는 1593년 1월에 있었던 小西行長の 평양성 퇴각과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 이후의 남해안 제해권 상실로 인한 전라도 진입 실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특히 한산해전 대패 이후의 해로차단과 小西行長の 고립된 형세로 인해 ‘정명가도’ 완결을 목전에 두고 있던 북진이 곤란하게 됐다.<sup>15)</sup> 이 때문에 일본은 남해안

14) 豊臣秀吉은 「秀吉の秀次に与へたる覚書」에서 ‘高麗國과 大明까지도 힘들이지 않고 정복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徳富猪一郎(1925)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朝鮮役 上卷, p.441. 그러나 일본군은 개전 수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해전에서 물러나고 도처에서 苦戰 상황(일본군이 장악한 황해도와 충청도에서는 조선의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일본군의 往還路를 방해, 전라도와 경상도도 거의 대부분이 일본군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 등)에 직면하게 된다.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二, p.26. 小瀬甫庵 1988:151.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7.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4. 竹越與三郎 1896:548, 552. 평양성 在陣 小西行長이 ‘압록강을 건너서 곧바로 大明으로 진입할 것이니 後援이 되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군 諸將들이 ‘慶尙・全羅 양도의 殘城이 굳건하게 지켜져서 항복하지 않는다. 이는 大敵이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가버리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전라도를 먼저 취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대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中, p.41. 이 때문에 徳富猪一郎은 ‘高麗國과 大明까지도 힘들이지 않고 정복’할 수 있다는 豊臣秀吉의 인식을 ‘그의 一大病根’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길이가 완전히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도 몰랐기 때문에 이 外征의 거사는 당초부터 실패의 禍因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徳富猪一郎(1925)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朝鮮役 上卷, p.441, pp.453-454.

15) 유성룡 2007:173. 당시의 일본군에게 있어 가장 곤란한 문제는 ‘兵員과 糧食의 결핍’이었고, 평양성을 점령했던 小西行長 부대가 복진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연해를 장악하고 있는 이순신의 수군으로 인해 ‘海上權’이 상실되고 ‘서해안 진출로(西上之路)’가 차단, 즉 ‘군량을 조운하는 해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었다.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卷之二, p.9.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卷第二, p.26. 德富猪一郎(1925)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朝鮮役 上卷, p.651, p.661. 德富猪一郎(1922)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朝鮮役 中卷, pp.292-293. Horace H. Underwood 1992:873. 小西行長・加藤清正이 豊臣秀吉에게 증원군 파견과 군량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을 경유하는 침범로를 포기하고 제주를 전라도 침범을 위한 우회경로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보에 의거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제주가 일본의 공략 대상지로 거론되기에 이른다.<sup>16)</sup>

한편 明의 본격적인 참전은 요동병(遼東兵)을 중심으로 하는 조승훈(祖承訓)의 평양성 공방(1592.7)을 둘러싼 전투에서였다. 그러나 초전은 패전<sup>17)</sup>으로 끝나게 되고 1593년 1월에 조·명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은 탈환되기에 이른다. 이때 明軍의 주력부대는 왜구 대비책의 일환으로 훈련된 보병 위주의 南兵이었고 동년 4월 왜군이 한양에서 퇴각한 이후 요충지에 주둔하게 된 것도 이들 남병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4:223-224, 232).<sup>18)</sup> 이로 미루어 임란 초기 조선에 파견된 明軍은 왜구와의 전투에 익숙한 남병과 북방 ‘오랑캐’와의 전투에 능숙한 북병인 보병이 주력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란 초기에 明 수군의 조선 파병은 충분히 구상되고 있던 바였다. 일례로 ‘중국 山東道의 수군 10만이 수로를 경유하여 왜적의 소혈(巢穴)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조선 조정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선조실록』 27卷, 25년 6월 己亥). 또한 明 경략 송응창(宋應昌)<sup>19)</sup>도 선조에게 보낸 격문에 광둥(廣東) 일대의 장수가 섬라(暹羅)·유구(琉球) 등의 군사와 연락하여 水路로 일본의 소굴을 공격할 것(『선조실록』 32卷, 25년 11월 辛未)이라는 참전의지를 담고 있다. 벽제관 전투(1593.1.27) 이후 明 사신 심유경(沈惟敬)이 小西行長에게 평화적 철수를 요청하며 “육로로 온 군대 외에도 해로로 강력

木村高敦(1740)『武徳編年集成』卷之四十二, pp.5-6. 이런 사실은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가톨릭신부 프로이스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루이스 프로이스 2008:85-87). 이에 대해서는 德富猪一郎도 평양성 在陣 小西行長 부대를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고 明과의 강화교섭을 부득이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본 수군의 한산도 패전이며, 이로 인해 조선 연안의 일본군 ‘海上權’은 거의 상실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在조선 일본군을 ‘半身不隨’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德富猪一郎(1925)『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朝鮮役 上卷, p.651, p.661.

16) 임진란을 기록한 프로이스도 “조선의 남쪽으로 큰 섬이 하나 있다. …… 구름도 뚫고 지나갈 정도의 참으로 높은 산이 있기로 유명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주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루이스 프로이스 2008:45-46).

17) 조승훈이 인솔한 요동의 병사는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일본과 싸우는 수단·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堀正意(1894)『朝鮮征伐記』卷第二, pp.1-2. 林羅山(1658)『豊臣秀吉譜』中, p.42.

18) 明 사신 설번(薛藩)은 明 조정에 보고한 글에서 “북방 사람은 오랑캐를 막는 데 잘하고 남방 사람은 왜를 막는 데에 잘하니, 만일 왜와 싸운다면 남방 군사 2만 명을 쓰지 않고는 어찌 그 칼날을 꺾어 그 날랜 기운을 좌절시키겠습니까. 그런즉 남방 군사를 속히 조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쓰고 있다. 趙慶男(1971)「난중잡록」二, 壬辰下, 선조 25년.

19) 송응창을 경략으로 임명한 것도 그가 절강성 출신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며 연해방어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堀正意(1894)『朝鮮征伐記』卷第二, p.3.



한 함대를 파견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통로를 차단할 것”(루이스 프로이스 2008:129-130)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러한 明의 내부동향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明이 제주에 주목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임란 초기에 明 수군이 파병되지 않았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임란 초기 조선 수군의 승전 때문으로 보인다(參謀本部 1924:338). 따라서 임란 초기 明 수군은 참전한 바도 없었지만, 전황 상으로도 明 수군의 출병 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 제2장 강화교섭기의 제주인식

제주를 경유해서 전라도로 침범한다는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의 치계와는 달리 1593년 7월에 제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본군의 패퇴를 비롯하여 강화회담의 개시<sup>20)</sup>라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유경과 小西行長이 용산에서 회담한 것은 1593년 4월 8일의 일이다. 임진강을 끼고 조·명 연합군과 일본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小西行長의 강화회담 제의로 이덕형과 일본의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겐소(玄蘇) 사이에 강화회담이 시작되는 교섭단계로 들어가고 있었고, 5월 23일에는 明 사신<sup>21)</sup>이 나고야(名護屋)에서 豐臣秀吉과 접촉하는 등 강화교섭이 본격 진행되기에 이른다.<sup>22)</sup>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小西行長과 심유경의 획책으로 일본측 사신<sup>23)</sup>은 위조된 ‘관백 항표(關白降表)’를 지참하여 1594년 12월 초 북경에 도착하고 12월 하순에는 豐臣秀吉을 ‘일본국왕’으로 봉한다는 明 신종(神宗)의 고명(誥命)을 얻기에 이른다. 이어서 1596

20) 조선 주둔 일본군이 심유경의 강화제의를 수용한 것은 장기화되는 조선 在陣에 힘듦고 고통스러워서 귀국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염전(厭戰)분위기에 대해서는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6. 林羅山(1658) 『豐臣秀吉譜』 下, pp.8-9.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三, p.3, p.11. 竹越与三郎 1896:556. 豐臣秀吉은 1592년 하반기부터 이미 明과의 강화를 예기하고 있었다. 行長과 심유경과의 담판은 결코 行長 개인의 독단적인 비밀사항이 아니었다. 이는 조선 沿道の 衛兵이 明使가 통과하는 길에 接待所를 경영하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德富猪一郎(1922) 『近世日本國民史 豐臣氏時代』 朝鮮役 中卷, pp.301-302.

21) 이들 사신은 明나라 신종(神宗)이 아니라 송응창이 임의대로 임명한 사용재(謝用梓)·서일관(徐一貫) 및 심유경을 가리킨다.

22) 木村高敏(1740) 『武德編年集成』 卷之四十二, p.15.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8, p.10.

23) 이들 사신은 豐臣秀吉의 본의와는 다른 小西行長이 조작한 家臣 나이트 조안(內藤如安)의 거짓 항복사절이다.

년 6월 말에 明 책봉사(正使 양방형 · 부사 심유경)는 도일하여 후시미성(伏見城)에서 豊臣秀吉을 접견하기에 이르지만,<sup>24)</sup> 豊臣秀吉은 ‘관백(關白)을 일본국왕’으로 봉한다는 明의 책봉을 거절하면서 1596년 9월 2일 강화교섭은 결렬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明 신종의 칙사가 도일하는 등 明 · 日 양국의 필요에 따라 강화교섭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도 豊臣秀吉의 하달에 따라 2차 진주성 공방<sup>25)</sup>(진주성 함락은 1593년 6월 29일)이 있었고 7월 중순 이후에는 경상도 연안 일대의 요지에 축성하여 수비병 주둔을 지시하고 있으나,<sup>26)</sup> 대국적인 전황 상으로는 10여 명의 장수와 약 4만 명의 병사만 조선에 주류시키고 1593년 8월~10월 사이에 일본 병력이 본국으로 회군<sup>27)</sup>하고, 9월에는 明 이어송(李如松)이 일본의 재공격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주력부대를 본국으로 철수시키면서 전쟁은 소강상태로 들어간다.<sup>28)</sup> 1593년 7월에 일본의 제주공략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강화교섭의 본격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豊臣秀吉은 제주공략 대신에 진주를 공격함으로써 평양성 패배 이후 이어지는 일본군의 침체된 사기를 앙양하고 明과의 강화절충에 즈음해서 조선의 四道할양을 확고히 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었다.<sup>29)</sup>

24) 明나라 책봉사가 도일함에 따라 加藤清正 등이 조선에서 철병한다.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四, p.14.

25) 豊臣秀吉은 1차 진주성 공격 실패를 일본의 ‘수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16.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10. 2차 진주성 공방전은 이러한 ‘수치’를 씻음과 동시에 진주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강화교섭을 진행시키려는 豊臣秀吉의 ‘和戰兩様’ 하달에 의한 것이다.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三, pp.17-19. 원래는 개성을 공략하고자 했으나 ‘大兵’이 이를 수비하고 있는 관계로 여의치 않고 ‘先攻晉州城’으로 결정하고 있다.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p.4-5.

26) 11개의 本城과 7개의 支城에 7만 8천 7백 명 주둔하게 된다.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三, pp.13-16.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21, p.26. 參謀本部 1924:296-299. 일본군이 연해에 진영을 구축한 것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구원하기 쉽고 漕運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五, p.8.

27)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四, p.3. 參謀本部 1924:299-302. 게다가 1596년 6월 15일에 이르면 부산과 加德島에 주둔하는 약간의 수비병을 제외하고 小西行長 등은 明 사신을 대동하여 전원 귀국하고 있다. 堀正意(1894) 『朝鮮征伐記』 卷第四, p.15.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p.22-23.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四, p.14. 參謀本部 1924:303.

28) 일례로 1593년 3월의 기록에 따르면 ‘한양에 있는 일본 諸將 10여 만병이 일시 공방전을 멈추고 하릴 없이 수일을 보내다.’는 일도 있었고, 1593년 7월 이후가 되면 일본 수군은 ‘피차 교전이 없고 해로가 안정되어서 가무음주로 소일’할 정도였다.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7.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26. 이순신 수군의 경우에도 부산포 해전(1592.9.1)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전투가 없었다(有馬成甫 1942:182-183).

29) 한편 1593년 8월에 아들 히데요리(秀頼)가 탄생하게 되면 豊臣秀吉은 ‘너무 기뻐서 조선과의 和議는

그러나 소강상태로 접어든 전황과 무관하게 1593년 10월, 조선 조정에서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선조가 한양으로 환궁(1593년 10월 1일)하여 정국의 안정을 되찾던 때의 일로서 이조판서 김응남(金應南)이 선조에게 “신이 전에 제주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대강 수로를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중국 江南을 가려면 매우 멀지만 전라도에서 요동에 가기는 매우 가깝습니다. 만일 호남으로 해서 바로 요동을 침범한다면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고 보고한 것이 그것이다.<sup>30)</sup> 중국 공략이 가능한 거점으로서 비록 ‘매우 멀다’는 전제는 깔려있었지만, 제주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거론된 것은 이것이 처음 기록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서 明 관계자들은 제주와 중국 강남의 거리를 ‘매우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영의정 유성룡은 선조에게 “장 파총(張把總)의 품첩(稟帖)을 보니, 제주에서 절강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했습니다. …… 제주도에서 절강이 4일 길이라고 합니다. 장 파총이 산동장관(山東將官)에게 이첩(移帖)하기를 ‘지금 수로의 형세를 보니 만약 크고 작은 병선 5척만 얻으면 왜적의 양도(糧道)를 끊을 수 있고, 쓰시마(對馬島)도 격파할 수 있다.’ 하였으니, 만약 수로로 직접 서생포 같은 곳을 치면 적이 웅거할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선조실록』 54卷, 27년 8월 丁巳). 절강에서 4일 걸리는 제주가 ‘왜적의 보급로’ 차단은 물론이고 對馬島와 서생포를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明 병선이 절강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동선(動線)은 현실성이 있는 구상이었을까?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난중일기』에 실려 있다.

(1594년 7월 18일 기사) 수루 위로 올라가자고 청하여 점심을 먹은 뒤에 나가 앉아 술잔을 두세 순배 돌렸다. 내년 봄에는 배를 거느리고 바로 제주에 건너간다고 하면서 우리 수군

심유경에게, 軍旅는 前田利家에게 위임하고 본인은 나고야에서 오사카로 돌아간다. 木村高敦(1740) 『武徳編年集成』 卷之四十二, p.16. 1594년 1월에 들어서면 豊臣秀吉은 ‘조선의 군사문제’에 게을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木村高敦(1740) 『武徳編年集成』 卷之四十三, p.1. 竹越与三郎 1896:555. 이에 대해 徳富猪一郎은 ‘豊臣秀吉 만년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秀頼에게 천하를 물려줄 것인가’에 있었고, 때문에 ‘秀頼 탄생 이래 豊臣秀吉은 이러한 집념이 나날이 농후해 져고 이로 인해 朝鮮役조차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徳富猪一郎(1925)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庚篇, p.51.

30) 이를 받아서 유성룡도 “반드시 먼저 우리나라를 얻어야 수로와 육로로 병진할 수 있습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조는 이에 대해 “이 말이 사실인가? 서북을 경유하지 않고도 요동에 갈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선조실록』 43卷, 26년 10월 壬寅).

과 함께 합세해서 추악한 적의 무리들을 무찌르자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다.<sup>31)</sup>

(노승석 2005:193)

(1594년 11월 28일 이후의 기사) 파총 장홍유가 이 달 17일 진에 도착하여 우리 수군의 위세를 보고 탄복하기를 마지않았습니다. 내년 봄 산둥, 천진 등에서 비호선(飛號船) 1백2십 여 척을 거느리고 곧장 제주도로 갔다가 그길로 한산도에 와서 합세하여 함께 저 적들을 토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비록 깊이 믿을 건 못되지만, 그 정황을 익히 보아온즉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승석 2005:230)

앞서본 『선조실록』의 ‘장 파총’은 『난중일기』의 명 장수 파총 장홍유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두 기사는 제주가 명 전선(戰船)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명은 제주를 중간거점으로 삼아서 이순신과 협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고, 이순신도 명의 계획에 ‘거짓은 아닌 것’ 같으며 일정한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제주에서 중국 강남까지 ‘매우 멀다’는 김응남의 지리적 인식과는 달리 명의 장홍유는 ‘매우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제주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명 전선의 중간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조판서 김응남과 파총 장홍유 중에 누구의 지리적·지정학적 인식이 타당한 것이었을까? 여기서는 장홍유의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장홍유가 다른 아닌 지리 문제를 담당하는 장수였기 때문이다. 선조가 장홍유를 접견한 것은 앞서본 『선조실록』이나 『난중일기』 기록보다 1~2개월 빠른 1594년 6월의 일이다. 이 접견자리에서 장홍유는 선조에게 자신은 “수로의 험난하고 평이한 곳을 알아보며 또 왜정을 정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선조실록』 52卷, 27년 6월 丁巳).<sup>32)</sup> 이처럼 수로 조사와 왜정 정탐을 담당했던 장홍유의 역할로 미루어 그의 지리적 식견이 타당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명 수군을 제주로 출병시키겠다는 장홍유의 구상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진입하기 위한 원로 항해 중에 제주가 그 중간거점으로서 더없이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결과로 보인다.

31) 이 기록은 이순신이 1594년 7월 17일 오전 10시경 병호선(兵號船) 5척을 거느리고 방문한 명나라 장수 파총(把總) 장홍유(張鴻儒)와의 대화를 담고 있다.

32) 한편 대일 강화논의 과정에서 왜적의 실정을 탐지하라는 권율의 명을 받은 병사 김응서가 小西行長을 만난 자리에서도 ‘장홍유가 배를 타고 水戰할 길을 살펴보았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趙慶男(1971) 「난중잡록」 三, 甲午年, 11월 21일.

한편 실제로도 조선 조정에서는 1594년 8월 20일에 明 수군이 제주를 향해 출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논의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제주가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현실을 반증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明 수군의 출병정보에 대해 선조는 “수병이 제주를 향해서 온다 하니, 내가 그 길은 알지 못한다만 어찌 큰 바다를 건너올 수가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하면서 설령 나온다 해도 산동반도나 요동반도를 거쳐 황해도를 경유하는 북방의 우회 해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선조실록』 54卷, 27년 8월 乙丑). 이에 반해서 윤근수는 “나오는 수병은 당연히 남직예(南直隸)·영과부·절강·소주·항주 등지를 경유해야 할 것인데, 제주도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일찍이 『유구록』(琉球錄)을 보니 ‘순풍일 때는 복건(福建)에서 7일이면 이르고 순풍이 아닐 때는 10여 일 만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고 보고하면서 “남직예가 제주와 가깝습니다.”고 답하고 있다(『선조실록』 54卷, 27년 8월 乙丑). 즉 선조의 우회 해로와 달리 윤근수는 중국의 강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남방의 직선 해로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봤을 때, 1593년에는 일본이 제주를 주요 공략지로 설정하고 있고, 1594년에는 明이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으로 제주를 주목하고 있으며, 조선 조정에서도 明 병선의 제주 출병을 실현가능한 구상으로 거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제주를 공략하는 일도, 또한 明 수군이 제주를 향해 출병하는 일도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화교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는 일본의 제주공략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현실감을 갖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서 1595년 10월의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비변사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제주가 海中의 절도(絶島)에 있으므로 적이 이곳을 엿보면서 연(燕)·제(齊)·계요(薊遼) 등을 침범하고자 하여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쳐 돌아온 사로잡혔던 사람 및 항복한 왜인이 말한 바도 가끔 이러하였으니 방비에 관한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 이 한 州 및 진도도 반드시 각별히 경리(經理)한 뒤에야 가합니다.

(『선조실록』 68卷, 28년 10월 丙寅)

장흥유의 보고처럼 明에서도 제주가 일본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듯이, 일본에서도 제주가 산동반도·요동반도 일대를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었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제주를 ‘반드시 각별히 경리’하라고 상

언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조선 조정의 경계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1596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유성룡이었다.

금년 봄에 방어하고 수비할 계책을 시급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른 곳은 다 거론할 수 없거니와 제주가 특별히 염려됩니다. 이곳은 서남쪽으로 바다를 정면하고 있고 또 중국과 서로 가깝습니다. 왜적이 만약 이곳을 점거하게 되면 비록 천하의 힘으로 탈취하려 하여도 탈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71卷, 29년 1월 庚午)

즉 비변사(1595.10)에 이어서 유성룡(1596.1)도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 미루어 임란 전반기와는 달리 강화교섭이 진행되던 1595년 이후가 되면 전화가 제주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셈이다. 유성룡의 문제제기는 조정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2주가 지나는 1596년 1월 17일의 조강(朝講) 후에 제주 방어문제가 재차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선조였다. 선조는 “적이 만일 제주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적이 전함 1천척으로 곧장 항구에 침입 상륙하여 영책(營柵)을 설치하고 지구전을 획책한다면 우리나라 병력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선조실록』 71卷, 29년 1월 甲申)라며 일본의 제주공략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선조의 불안감은 ‘적함 1천척의 상륙’이나 ‘지구전 획책’과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서, 이는 이에 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성룡은 “제주는 군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라도는 한산도에만 치중하고 제주는 아예 제쳐놓습니다. 적이 만약 이곳에 웅거하게 된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당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원(中原)에도 또한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를 수 있습니다. 적이 이러한 형세를 모두 알고 있으니 더욱 염려”된다고 답하고 있다(『선조실록』 71卷, 29년 1월 甲申).<sup>33)</sup> 유성룡의 우려도 일본이 제주를 점거하게 된다면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도

33) 이런 사태는 일찍부터 지적되던 바였다. 경략 송응창의 계첩(1593.6) 참조. 『선조실록』 39卷, 26년 6월 壬子.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三, p.9. 明 총병(摠兵) 유정(劉綎)의 주장 참조(『선조실록』 54卷, 27년 8월 乙丑).

안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성을 띠고 있었다. 선조와 유성룡의 이러한 우려감으로 미루어, 일본의 제주공략 가능성은 당시 조정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이순신을 향해서 ‘전라도 수군 중에 우도의 수군은 제주와 진도를 성원하라는 명령’<sup>34)</sup>을 내린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제주공략 위협성에 대해서는 조정에서도 심각하고 현실적인 우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제주도는 명·일 양국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주공략에는 이르지 못한 탓인지, 이와 관련된 후속 사건은 발견되지 않는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에서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강화회담이 결렬(1596년 9월)된 이후인 1596년 12월에는 선조의 비망기에 대해 비변사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제주는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구원할 길이 더욱 막연하니, 만약 왜적이 이곳을 점거한다면 그 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상의 교지와 같이 왜적은 중국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꺼리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당 태종이 신라 군사들로 하여금 당나라 군기(軍旗)를 세우게 하여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한 것도 바로 이 방법이니, 이를 오화한 일로 여기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을 통제사에게 빨리 비밀히 하유하여 중국군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고 중국군이 제주에 와서 정탐하면서 수비를 도와주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형세를 떠벌리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술책입니다.

(『선조실록』 83卷, 29년 12월 戊寅)

34) 이에 대해 이순신은 “(1596.2.28) 늦게 나가 앉아 있으니 장흥부사와 체찰사의 군관이 이곳에 이르렀는데, … 전라도 수군 중에 우도의 수군은 좌도와 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와 진도를 성원하라는 명령도 있다고 했다. 조정에서 계획이 이럴 수가 있는가. 체찰사가 계획을 내놓은 것이 이렇게도 실속이 없단 말인가. 나라의 일이 이러하니 어찌할 것인가.”고 염려하고 있다(노승석 2005:322). 한편 조선 조정의 위기의식과는 달리 이순신은 임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에 ‘해군을 파하고 육전에만 전력’하자는 당대 제일의 명장이었던 신립(申瑰)의 장계에 대해 “바다로 오는 적을 막는 데는 해군만한 것이 없다.”(이은상 1960:30)고 반대 장계를 올리고 조정의 공인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기록에는 접할 수 없다.

35) 제주목사 이경록의 제주 방어에 대한 공로로 승진을 제수하라는 선조의 비망기(備忘記)에 대해 『선조실록』에는 “(제주목사 이경록은) 궁마의 기술로 초탁(超擢)되기는 하였으나 외침을 막았다는 일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주에서의 교전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선조실록』 83卷, 29년 12월 癸未).

선조는 비변사의 보고대로 시행을 하달하고 있다. 明이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이 제주 점거 시 예측되는 불상사에 대한 염려가 표명되고 있으며, 역으로 明이 제주 주둔 시에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 논하면서 위장술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제주가 명·일 양국에게 피차 얼마나 중대한 지정학적 거점인지가 새삼 지적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유재란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1596년 12월 23일 비변사의 건의에 따르면, “2~3개월 후에 왜적이 재침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온다면 먼저 전라도와 제주도를 침범하고 또한 주사(舟師)를 침범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일에도 신칙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다시 도체찰사·도원수·경상 전라의 순찰사·통제사 및 제주목사 등의 관원에게 비밀히 유시하여 새로운 각오로 변란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선조실록』 83卷, 29년 12월 乙酉)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는 조·명·일 삼국에게 상대지역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으로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었다. 조선 조정이 이순신에게 ‘제주를 성원’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나 明 수군의 제주출병 구상, 일본의 재침 시에는 ‘먼저 제주도를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는 한결같이 이러한 지정학적 제주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정작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제주 공방전은 전개되지 않고 있었다.

### 제3장 정유재란기의 제주인식

정유재란이 발발한 1597년 이후에도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조선 조정의 우려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제주판관 파견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판관을 문관으로 임명하자는 대간의 청에 대해 좌의정 김응남은 “적들이 한창 넘겨다보고 있는데, 이 州에 문관을 골라 보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무변(武弁)에서 가려 뽑아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영의정 유성룡 등 조정의 의견도 한결같이 “문관을 뽑아 보내는 것은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무변에서 가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선조실록』 88卷, 30년 5월 乙巳). 그 이유는 병조판서 이항복의 지적대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판관이 전함에 올라 선봉”(『선조실록』 88



卷, 30년 5월 乙巳)에 서야 한다는 데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를 둘러싼 비상 상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제주공략 우려에는 변함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보고가 1597년 6월 14일의 경상우도 병사(慶尙右道兵使) 김응서의 비밀장계에 보인다. 이 장계에 따르면, “관백(關白, 豊臣秀吉)이 50만의 군대를 일으키면서 우선 30만의 군사를 먼저 내보내 전라도·제주도 등을 유린하고, 의령·경주의 산성은 기필코 공파(攻破)한 뒤에야 그만둘 것인데 6~7월 사이에 발동시킨다.”는 것이었다(『선조실록』 89卷, 30년 6월 癸酉).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597년) 8월 1일에 곧바로 전라도 등지로 들어가 곡식을 빼어 군량을 삼고 산성을 격파할 것이며 보장할 만한 형세가 있거든 두 도에 유둔(留屯)하면서 이어 제주도를 치라. 만약 불가하거든 군사를 돌려 고성(固城)에서 서생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이어 둔을 치고서 조선에서 강화를 애걸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것이었다.<sup>36)</sup> 일본의 제주공략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조정에서도 공유되어 있던 관계로 이 비밀장계는 현실감 있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보듯이 豊臣秀吉은 ‘전라도 지방으로 진격하여 각처의 산성을 공격하고 이어 제주를 공격’하라고 하달하고 있다. 제주 공략이 본격적인 전략의 하나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황은 豊臣秀吉의 구상대로 진행된다. 1597년 7월 절영도와 가덕도에서는 원군의 조선 수군이 패배하고 있고, 이어지는 칠천량해전(1597년 7월 16일)에서 조선의 수군은 참패를 당하게 된다.<sup>37)</sup> 해로를 확보한 일본군은 육로로 ‘전라도로 향해 진격’하여 8월에는 ‘각처의 산성을 공격’하여 전라도의 주요 거점들이 ‘공파’(남원성 함락은 1597년 8월 16일, 황석산성 함락은 1597년 8월 17일)당하고 여기에 ‘유둔’하는 사태에 이른다. 따라서 豊臣秀吉의 구상대로라면 해로와 육로에서 전라·경상 양도에 대한 공략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상태였다. 때문에 다음 단계는 ‘이어 제주도를 치라.’는 하달이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36) 이와 관련된 기사는 조선과 일본 양측의 사료에서 공히 발견된다. 『선조실록』 89卷, 30년 6월 癸酉.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四, p.26. 이와 동일한 기사가 『豊臣秀吉譜』에도 게재되어 있으나 ‘제주’공략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p.40-41.

37) 정유재란에 즈음해서 일본 수군은 웅천성을 근거지로 해서 海上부대를 편제함으로써 임진왜란 때와는 전혀 다른 진용을 만들었다(有馬成甫 1942:218). 결국 해전에서 일본의 승리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해의 입구’에 해당되는 ‘전라도의 외번(外藩)’인 한산도를 제압함으로써 ‘行軍’하는데 편하게 되었고, 그 기세를 타서 수륙으로 병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四, pp.28-31.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五, p.1.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豊臣秀吉이 하달했던 ‘만약 불가하거든’이라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순신은 칠천량에서 생환한 12척의 전선을 토대로 하여 수군재건에 성공하게 되고, 결국 서해로 본격 진출하려던 일본 수군은 이순신 수군에 의해 어란포해전(1597년 8월 27일)·벽파진해전(1597년 9월 7일)에 이어 명랑해전(1597년 9월 16일)<sup>38)</sup>에서 대패함으로써 이순신 수군에 의해 남해안 제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일본의 제해권 상실로 인해 豊臣秀吉이 하달한 바 있는 제주공략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됐던 것이다.<sup>39)</sup> 이후로 일본 수군은 이순신 수군과 대치하며 남해안 공방전에 모든 전력이 묶임으로써 제주공략은 실행 불가능한 하달이 된 것이다. 따라서 1597년 8월~9월은 가시화됐던 일본의 제주공략이 결정적으로 좌절된 분기점이 됐다고 할 것이다.

한편 明에서도 제주문제가 주목받고 있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1597년 9월 흠차 부도어사(欽差副都御史) 형개(邢玠)가 보낸 자문(咨文)이다. 한 달 전인 1597년 8월에 남원성이 함락된 위중한 사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라·경상 二道야말로 가장 중요하니, 경상도는 문호이며 전라도는 부창(府藏)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가 없게 되면 전라도가 없게 되고 전라도가 없게 되면 다른 도가 있어도 소방은 끝내 외거하여 근본을 삼을 만한 계책이 없게 되니, 이곳이야말로 왜적이 반드시 쟁취하려는 곳으로서 우리가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 해도(海道)로 말하더라도 왜적이 만약 전라도를 점거하게 되면, 멀리는 서해 일대에서부터 가깝게는 진도·제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왜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면 1~2일 정도 순풍만 불어도 압록강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개성과 평양도 죽히 견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선조실록』 92卷, 30년 9월 丁未. 『선조실록』 93卷, 30년 10월 癸亥)

38) 임진·정유재란을 통틀어 일본이 진출한 최고 서쪽이 명랑이었다. 명랑을 돌파하는 일본의 西攻이 성공한다면 서해가 완전 장악되는 셈이었다(片野次雄 1983:229-236).

39) 豊臣秀吉이 제주공략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있다. “비전주(肥前州)는 우리나라의 제주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곧장 제주로 향해 갈 경우에는 매우 가깝다. 그런데 수길(秀吉)이 무술년(1598년)에 전란을 일으키면서 비전주에 새로 궁궐을 짓고서도 끝내 감히 곧장 제주로 건너가지 못하였던 것은 바닷길이 몹시 험해서였다. 전후로 군사들이 출동하면서는 모두 對馬島로부터 나와 거제도(南島)의 남쪽 해안을 따라 나왔다. 그러므로 이순신이 통영을 지키고 있자 왜적들이 끝내 바다로 해서 서쪽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韓致齋(조선 후기) 「交聘志 八. 附 通倭海路」 『海東繹史』 卷第四十. 이처럼 ‘바닷길이 몹시 험해서’ 제주공략이 힘들었다는 이유는 고려시대에 “탐라는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부의 침략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어서 제주로 가는 해로가 외부의 침략을 방어해 주는 요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탐라안무사(按撫使) 조동희(趙冬曦)의 보고를 연상케 한다. 『高麗史』 毅宗 22년(1168) 겨울 11월 丁丑.

여기서도 보듯이 明에서도 전라도의 함락이 제주의 함락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사태는 1일~2일 정도 순풍만 불어도 왜적이 압록강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는 앞서 유성룡이 지적(1596년 1월 17일의 조강 후)한 바와 같이 ‘적이 만약 제주에 웅거하게 된다면 중원에도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明의 입장에서 자국 방어를 위한 요지에 해당하는 곳이었던 셈이다. 임란 과정에서 조·명 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고 거론되고 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선조실록』 32卷, 25년 11월 癸未, 국사편찬위원회 2004:49, 김한규 2007:293-294, 케네스 M. 스위프 2007:342, 北島萬次 2002:264, 한명기 1999:39).

한편 明 조정에서는 남원성이 함락된 2개월 뒤인 1597년 10월에 제독 동일원(董一元)·유정(劉綎)과 수병제독(水兵提督) 진린(陳璘)의 조선출병을 결정하고 있다. 정유재란기에 광동·강소·절강의 수군이 출병하게 된 것은 임란 당시 일본군의 측면과 배후를 위협하지 못한 전략 검토에 따른 조치였다.<sup>40)</sup> 칠천량해전에서의 조선 수군 패배와 남원·전주의 함락은 산동반도 일대에 대한 일본의 직접 공격을 우려하게 만들었고, 결국 明의 조선출병을 앞당기게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4:56-57, 이민웅 2004:248-252). 그 일환으로 동년 12월에는 장수 절강유격(浙江遊擊) 계금(季金)이 거느린 수군 수천 명이 해로를 경유해서 호서에 정박하고 상륙한 다음 남원에 이르러 시라산(時羅山)에 진을 친다. 수군이 파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전을 위한 해상이 아닌 육전을 위한 지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1598년 초에 진린이 이끄는 광동·강소·절강의 수군 9천 여 명과 함선 5백여 척이 서해를 건너 조선으로 파병되어 당진(唐津)에 정박하기에 이르나,<sup>41)</sup> 진린이 7월 16일 수병 5천 여 명을 이끌고 향한 곳은 제주가 아닌 이순신의 거점 고금도였다(參謀本部 1924:336). 결국 明의 본격 참전은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사로병진 작전(四路竝進 作戰)이 개시되는 1598년 초에 들어서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국사편찬위원회 2004:59-60), 본격 전투는 각 방면(울산성 9.20 대치, 사

40) 參謀本部 1924:338. ‘조선의 장점이 수전’에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도 익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경략 총독(經略總督)이었던 형개(邢玠)는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조선의 군대는 오직 水戰에만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明 남병(특히 사천·절강)을 징발하는데 참고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2004:56,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四, p.25.

41) 이것이 해전을 위한 明 수군의 본격적인 조선출병 효시이다(參謀本部 1924:344).

천성 9.19 공격, 순천성 9.19 전투)에서의 육상전과 이순신이 전사하는 노량해전(1598.11.18-1598.11.19)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조·명 연합함대의 합동작전이 전개됐을 따름이다. 빈번하게 대두되었던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조·명 수군의 제주출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일본이 제주를 침략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례로 정유재란 후반기로 접어들던 1598년에 제주목사 이경록이 험준한 천연요새인 성산산성(城山山城)을 방비하면서 왜적의 변란에 대처하고자 했던 것은 제주공략에 대한 우려감의 발로였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본지(本地)를 버려두고 산성에 전력할 경우 비록 암저(巖阻)의 험고함은 있다 하더라도 왜적이 본지로 들어와 응거한다면 주인이 도리어 객이 되는 형세가 있으니 자못 좋은 계책이 아니다.”고 반대한 것은 그때까지도 일본의 주력부대가 제주에 상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선조실록』 97책, 31년 2월 乙亥). 임란을 기록한 일본측 자료에도 제주 해전<sup>42)</sup>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에 접할 수 없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sup>43)</sup> 게다가 조·명 연합군과 일본 간 본격 전투가 이루어지는 1598년 9월이면 이미 豊臣秀吉이 사망(1598.8.18)한 이후로 조선에서의 철군명령이 하달된 때였다.<sup>44)</sup> 때문에 일본군은 明軍과의 화의를 추진하면서 철군준비에 돌입한 시점이어서 전투도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다. 결국 일본의 제주공략이 가시화되기 전에 전란은 종언을 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결과적으로 제주 공방전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제주도는 누

42) 일본의 일부 자료에는 1597년 일본 수군은 明 제독 진린의 수군과 제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인 바가 있으며 이 해전에서 明 수군은 패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竹越与三郎 1896:556). 이와 유사한 사실이 에도시대 중기의 저명한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교전이 벌어진 곳은 ‘제주’가 아닌 ‘唐島’로 기록하고 있다(寺島良安 1884:665).

43) 17세기 저술로는 小瀬甫庵 『太閤記』 (1625년), 林羅山 『豊臣秀吉譜』 (1642년), 堀正意 『朝鮮征伐記』 (1659년), 大河内水元 『朝鮮物語』 (1662년), 林羅山·林鶯峰 『本朝通鑑』 (1670년), 山鹿素行 『武家事紀』 (1673년)가 있고, 18세기 저술로는 湯川常山 『常山紀談·武林名譽錄』 (1739년), 木村高敦 『武徳編年集成』 (1740년), 19세기 저술로는 川口長孺(1831년) 『征韓偉略』 (1831년) 등이 있으며, 明治期 이후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陸軍參謀本部 『朝鮮地誌略』 (1888년), 北豊山人 『(文祿慶長)朝鮮役』 (1894년), 山路愛山 『豊臣秀吉』 (1909년),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朝鮮役(1920년대), 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本編 附記)』 (1924년),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1942년) 등이 있다.

44) 林羅山(1658) 『豊臣秀吉譜』 下, p.53. 川口長孺(1831) 『征韓偉略』 卷之五, p.23. 조선 제장에게 철군 훈령을 보낸 것은 1598년 9월 5일의 일이다. 徳富猪一郎(1925)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朝鮮役 下卷, pp.650-652.

가 점거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선점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주목받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97년 8월~9월에 있었던 명량해전 등 일련의 해전은 豊臣秀吉의 작전하달로 인해 가시화됐던 일본의 제주공략이 근원적으로 좌절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 결론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주목받기에 이른 것은 임란 초기를 지난 강화교섭기의 일이다. 豊臣秀吉은 평양성 퇴각과 남해안 제해권 상실 및 전라도 진입 실패로 인해 강화교섭기로 접어드는 1593년 7월에 남해안을 경유하는 침범로를 포기하고 제주를 전라도 침범을 위한 우회경로로 삼고자 했다. 이에 반해 이때까지 明은 제주에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임란 초기 明 수군의 조선 파병은 충분히 구상되고 있던 바였다. 그러나 강화교섭의 본격 전개와 조선 수군의 승전이란 전황도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明 수군의 파병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1593년 10월 이후가 되면 明에서는 제주가 ‘왜적의 보급로’ 차단은 물론이고 일본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며, 또한 조선 조정에서도 처음으로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즉 1593년 강화교섭 개시 이후 파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주는 일본에서는 산동반도·요동반도 일대를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明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조선 조정 또한 그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이순신에게 ‘제주를 성원’하라고 하달하기에 이른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후에도 제주를 둘러싼 삼국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豊臣秀吉은 1597년 6~7월 사이에 ‘제주를 공격’하라고 하달함으로써 제주 공략이 본격적인 전략의 하나로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명량해전에서 대패함으로써 제주공략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되며, 따라서 이 해전은 가시화됐던 일본의 제주공략이 결정적으로 좌절된 분기점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明에서도 제주가 함락되면 결과적으로는 ‘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제주의 지정학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조선 조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제주목사나 판관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함에 올라 선봉’에

설 수 있는 무관 파견론이 대세를 이룬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7년에 이르는 삼국의 전쟁에서 제주 공방을 위한 실질적인 해전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1593년 후반기로 접어들면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 위상으로 인해 전란 당사국들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누가 제주를 점거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선점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주목받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 조정에서는 제주가 조선을 지키기 위한 전수(專守)방어적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었다면, 명·일 양국은 제주를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공격적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에 들어 침략적 영토팽창을 국가목표로 설정했던 일본제국주의를 비롯한 구미열강의 제주에 대한 주목은 바로 이러한 공격적 거점으로서 제주가 갖는 지정학적 가치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제주를 둘러싼 임란기의 방정식은 근대에 들어서도 변함없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 후에도 제주는 ‘천하의 안위’(『선조실록』 137卷, 34년 5월 戊申)가 달려있고 ‘조선의 팔꿈치와 겨드랑이’(『선조실록』 137卷, 34년 5월 己酉)에 해당되는 지정학적 요지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고, 이 때문에 제주에 관료·원병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선 조정의 다대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인조가 즉위하는 1623년에 들어서면 이러한 제주인식에 판연한 변화가 발생한다. 일례로 제주목사나 판관의 무관 당위론과는 달리 문관을 차송하는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인조실록』 1卷, 1년 4월 壬申. 『인조실록』 14卷, 4년 12월 戊午. 『인조실록』 49卷, 26년 10월 甲午), 예전과 같은 제주의 지정학적 중시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1623년 이후 관찬사료에서 제주목사·판관의 무관 당위론이나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양란 이후 제주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천착이 필요한 문제로서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45) 조선 후기 정조의 문집에도 제주와 관련된 글이 있지만, 지정학적 차원에서 제주를 언급한 글은 보이지 않는다(正祖 1814).

## ■ 참고문헌

- 허호준(2010.2)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일우(2008.8)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韓國史學報』 제32호, 고려사학회
- 루이스 프로이스 지음·정성화·양윤선 옮김(2008) 『임진난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살림
- 김한규(2007)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정두희·이경순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 유성룡 지음·이재호 옮김(2007) 『국역정본 징비록』, 역사의 아침
- 케네스 M. 스위프트(2007) 「순망치한(脣亡齒寒)-명나라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두희·이경순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 제주도(2006) 『濟州道誌』, 濟州道
- 차철욱(2006) 「임진왜란시기 日本 水軍의 활동과 관련자료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27,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노승석 옮김(2005)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동아일보사
- 박재광(2005)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六反田豊 外(2005)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2004)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四, 국사편찬위원회
- 이민웅(2004)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 塚崎昌之(2004)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4호, 각
- 金普漢(2004.12)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文化史學』 제22號, 한국문화사학회
- 이영(2003.12)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제123호, 한국사연구회
- 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Horace H. Underwood 저·崔在洙 譯(1992.8) 「임진왜란과 李順臣장군의 海戰」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梁聖宗(1991.2)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耽羅文化』 第11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朴祉炫(1988.8) 「濟州島의 地政學的 位置研究」 『장안지리』 제3권 제4호, 장안지리학회
- 金宗業(1984.2)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歷史學的 側面」 『耽羅文化』 第3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安鼎福(1979) 『국역 동사강목』 8, 민족문화추진회
- 趙慶男(1971) 「亂中雜錄」 『大東野乘』 VI, 민족문화추진회
- 이은상(1960) 『國譯註解 李忠武公全書』 下, 忠武會
- 正祖(1814) 『弘齋全書』 <http://www.minchu.or.kr>
- 韓致胤(조선 후기) 『海東繹史』 <http://www.minchu.or.kr>

## 『朝鮮王朝實錄』

- 本居宣長 著・山口志義夫 譯(2009)『馭戎慨言-日本外交史』本居宣長選集二、多摩通信社  
北島萬次(2002)『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校倉書房  
山路愛山(1996)『豊臣秀吉』下、岩波文庫  
小瀬甫庵 著・吉田豊 訳(1988)『太閤記』(三)、教育社  
金泰能 著・梁聖宗 訳(1988)『濟州島略史』、新幹社  
片野次雄(1983)『李舜臣と秀吉-文祿・慶長の海戦』、誠文堂新光社  
有馬成甫(1942)『朝鮮役水軍史』、海と空社  
徳富猪一郎(1925)『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庚篇、民友社  
\_\_\_\_\_(1922-1925)『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朝鮮役 上・中・下巻、民友社  
参謀本部 編纂(1924)『日本戦史 朝鮮役(本編 附記)』、偕行社  
山鹿素行(1915)『武家事紀』上巻、山鹿素行先生全集刊行会  
湯川常山(1912)『常山紀談・武林名譽録』、国民文庫刊行会  
佐藤鐵太郎(1908)『帝国国防史論』、水交社  
林羅山・林鶯峰(1897)『本朝通鑑』巻第77、博文館  
竹越與三郎(1896)『二千五百年史』、警醒社書店  
北豊山人(1894)『(文祿慶長)朝鮮役』、博聞社  
堀正意(1894)『朝鮮征伐記』松本愛重 編『豊太閤征韓秘録』第1集、成歆社  
柴山尚則(1892.1)『文祿征韓水師始末 朝鮮李舜臣伝』、『偕行社記事 第82号』附録  
陸軍参謀本部(1888)『朝鮮地誌略』巻8(全羅道之部)、陸軍参謀本部  
寺島良安 編(1884)『和漢三才図会』上之巻、中近堂  
大河内水元(1849)『朝鮮物語』、東都書林  
川口長孺(1831)『征韓偉略』、須原屋茂兵衛  
木村高敦(1740)『武徳編年集成』<http://epic.lib.ibaraki.ac.jp>  
林羅山(1658)『豊臣秀吉譜』中・下、荒川四郎左衛門刊



## ■ 논문초록

키워드	濟州島, 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 地政学的認識, 李舜臣, 豊臣秀吉 Jeju island, Imjin war, geopolitical perception, Yi Sunsin, Toyotomi Hideyoshi
<p style="text-align: center;"><b>朝鮮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三国の濟州島認識</b></p> <p style="text-align: right;">李 圭倍</p> <p>濟州島が軍事的要衝として注目されたのは、講和交渉期に入ってからである。豊臣秀吉は、平壤城からの退却や南海岸での制海権の喪失などにより、1593年7月に南海岸を経由する侵犯路を諦め、濟州島を全羅道侵犯の迂迴経路にしようとした。明国も、戦況が小康状態に入る1593年10月以後になると、濟州島が「倭賊の補給路」の遮断は勿論のこと、日本攻略ができる重要な地政学的據点として認識するに至っており、朝鮮朝廷でもこの時点で初めて濟州島の地政学的位相に対して議論することになる。即ち、講和交渉の開始から破綻に至る1593年～1596年の間、濟州島は、日本では山東半島と遼東の一带を攻略するための據点として、明国では日本を牽制し攻略できる據点として注目を浴びており、また朝鮮朝廷でも李舜臣に「濟州を声援せよ」と下達するほど、その地政学的な価値に注目するに至る。慶長の役の時にも、濟州島をめぐる三国の認識には、なんら変りはなく、豊臣秀吉は、1597年6月～7月の間に、「濟州島攻撃」を下達することによって、濟州攻略が本格的な戦略の一つ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る。しかし、日本は鳴梁海戦にて大敗し、濟州攻略が不可能な状況に陥る。一方、明国では、濟州島が日本の掌握するところになると、「敵船が海上を自由に行き来できる」事態を憂い、電撃的に朝鮮出兵を決定したのも、濟州島の地政学的認識に基づくものであった。朝鮮朝廷で、濟州牧使や判官は「武官を派遣すべし」という主張が大勢をなしたのも、このためであった。結果的に、濟州攻防戦には至らなかったものの、1593年の後半から終戦に至るまで、濟州島は地政学的な位相により、戦乱の当事国の注目を浴びた地域であったことが窺われる。ただし、朝鮮は、濟州島を専守防禦的な観点から注目していたのに反して、明・日は攻撃的な據点としていたという明確な差異のあった実態が指摘できる。</p>	
필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이 규배 (한자): 李 圭倍 (영문): Lee, Kyu Bae 영문제목: The Perception of Jeju Island by Three Countries in East Asia during the Joseon Era - Focusing on the Imjin-War - 소속: 탐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주소: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25-6 타워프로빌 B동 608호 전화: 010-6698-2142 E-mail: leekyubae@hanmail.net
논문 작성 일시	투고마감일: 2011. 02. 27. 심사일: 2011. 02. 28. 심사완료일: 2011. 03. 13.